

2011 년 11 월- 성인들의 묵상과 기도

드니스 폴론(Denise Pollon), FMI (브라질)

축일들:

11 월 1 일: 모든 성인들 날

11 월 6 일: 마드리드의 마리아니스트 순교자들의 기념일



Fr. 샤미나드는 성인들의 애니매니터 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남녀들, 그리고 모든 신분들”

거룩한 표징의 샤미나드 신부: 그는 거룩하게 살았고, 그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Mt 5:48)

아버지의 거룩함 안에서 완전히 나누는 그리스도의 체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빛을 발하며, 퍼뜨리는 거룩함입니다; 그의 안에서, 모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사들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하며,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 개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세례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우리자신을 세상 안에서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것을 서약합니다.

진실성안에서, “거룩함”이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참여하도록 불리워지면서 “하는 것”인 “존재”안에 좀 더 기반이 되는 곳인 거룩함은 깨달음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이해를 위하여 본질적인 것입니다.

1818 년 피정에서, 샤미나드 신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룩함의 존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수적인 덕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결점들을 멀리 보내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고결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의 덕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화는 좋은 것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증언을 주어야 합니다”(샤미나드 편지 No388)

혁명 후에, 샤미나드 신부는 보르도에서 신앙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도 안에서 그들을 일치되도록 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게 하는 마들렌 성당에 소달리티 회원들을 증가하고, 끌어 모았습니다.

소달리스트들을 모임안에서, 샤미나드 신부는 이 평신도들을 거룩함의 높은 단계로 불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기도의 성령을 계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사도적 열성과 형제의 사랑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동정마리아를 향하여 사도적 결과적인 신앙심을 전했습니다.

소달리티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전에, 8 일간의 피정에 나누는데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대축일 전야에 그들은 진지하게 마리아와 함께 맺은 그들의 계약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세례성사의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모든 요소들은 이 피정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향하게 되는 거룩함은 우리가 토대, 사례와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교자들이 덕행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상기합시다: 겸손, 관대함,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사랑을 위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삶, 최고의 필요에 참여와 봉사를 하는 것. 그들은 복음 때문에 마리아니스트로서 죽었습니다. 거룩함에 다다른 일생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의 종신서원의 선물로서, 그는 가톨릭에(라틴에) 두 개의 성구를 넣은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1 데살 4:3), 그리고 또 다른 ,최고의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의 발 아래에서 그의 삶과 죽음을 원하는 표현 (Salaverri 주교,pp168,232)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동기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에게 우리 자신을 신뢰를 둡시다. 그에게 신앙심을 존속하게 합시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를 통하여 유익한 결과를 내는 삶의 거룩함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신비와 함께 일치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그의 사람, 성령의 덕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요한 15:12; 가톨릭 교회의 교황청 2074)

거룩함은 오직 종교적인 일치 또는 윤리적인 기준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되는 우리를 위한 한가지 방법은 누가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보다 큰 존재” 전에 있게 된 우리자신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찾는 것을 보다 적게 한 다음 그것들과 함께 하느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우리자신이 그것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에게 선물임을 느끼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시간: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은 무엇이며, 거룩함의 표징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기도의 구성-개인적인 시간

믿음과 하느님의 선물의 내적인 기도의 방법

- 1 -- 완전한 침묵 찾기: 몸, 언어, 상상, 열정, 정신, 표현
- 2 -- 하느님의 현존의 깨달음(인식).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임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을 주시하기
하느님의 현존이 당신 자신을 감싸고 깊이 잠기게 하기.
3. -- 하느님의 현존안에 머무르기; 하느님의 현존의 습관을 성장시키기.
이 현존의 깨달음(인식)을 다시 각성하는 날을 가끔 예약하기.

예식(전례)을 위한 제안들

시작: 성령의 기도

텍스트 독서: “마리아와 함께 성령의 활동.”(아래를 보시오: Bichelberger, 14 장)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서, 우리 안에 생각 나눔, 통찰력, 그리고 이 문서들의 힘의 영감을 우리 안에
불어넣기.

시편 93(92)편 기도 그리고 청원의 기도를 간단하게 돌아가기

상징들과 물질적인 의미들:

빛, 초, 성서

물- 하느님의 생명으로의 탄생과 세례의 서약들의 기념품

창립자들의 사진들, 거룩함을 향하여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

우리의 마리아니스트 순교자들—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헌된 삶들의 예들.

다양한 기회들—예식을 위한 선택하기.

개인적인 목적들— 상징적인 공동체의 봉헌을 표현하는 것을 선택하기.

Roger BICHELBERGER, CLM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 아래

마리아와 함께 일하는 거룩한 성령

샤미나드로 의해서, “하느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함께 거룩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의 협조로부터의 결과들입니다. 샤미나드는 마리아의 역할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가 되는 크리스찬의 양상 안에 있고 협조하는 거룩한 성령의 방향에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의 일치로 지속한다 할지라도, 그는 또한 신성하게 하는 사람이고 서로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각각의 크리스찬” 샤미나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에서 받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훌륭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크리스찬들을 만들 것 입니다.”(샤미나드의 유산, vol. 7, doc. 22, [35])

그러므로 성령은 잉태, 탄생,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성장에서 활동적으로 현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지, 어떻게 우리의 서로 안에 그의 일을 함께 협조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하는 기도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마리아에 경우는, 그녀는 그의 그림자 아래 그녀를 있게 하는 성령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샤미나드가 말하기를: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처럼, “마리아 안에 잉태되었고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마리아에게서 양육됩니다. 예수와 함께 마리아의 아들로써 다른 예수가 됩시다.”(샤미나드 유산, vol. 7, doc. 22, [35]). 그 때문에, 마리아는 크리스찬 감각, 그녀의 각각의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지치지 않는 샤미나드의 주제입니다. 크리스찬 거룩함은 마리아와 함께 일치 안에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와 함께 말한 다음에 할지도 모릅니다; 거룩함은 인간들의 일을 각각 유순하게 성령에게 머무른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일을 동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참조: R. Bichelberger,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와 함께 걷기, 14 장